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Economy Impact of Tourism Industry in Korea – Input/Output Analysis

지봉구, 이계희, 김태구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Bong-Gu Jee(tourxpert@khu.ac.kr), Gye-Hee Lee(ghlee@khu.ac.kr),  
Tae-Goo Kim(tgkim@khu.ac.kr)

### 요약

관광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은 최근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유용성이 높다. 2007년과 2008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연관분석의 주요지표들은 최승이[6]의 연구와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관광산업의 범위를 축소한 상황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은 과거에 비해 관광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분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각종 계수를 전체적으로 도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 중심어 : | 관광영향 | 관광산업 | 경제적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 |

###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tourist industry in relation to the general industries is of high use as a means to measure an economic effectiveness as the interest in the policy of service industry increases. From the Input-Output Tables of both 2007 and 2008, Inverse Matrix Coefficients, Imports Requirement Coefficients, and Value Added Requirement Coefficients have been deriv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main indexes of the industry-related analysis have almost no differences as compared with those of the 1980s. In spite of the reduction in the scope of the tourist industry in this paper, it is estimated that the reason why the above-mentioned result has been derived is that the influence of today's tourist industry grows bigger than that of the past. In the future studies, the agreement on the classification of tourist industry is requested. In addition, all kinds of calculations have to be derived in general, and the general parts of the tourist industry have to be analyzed in details.

■ keyword : | Tourist Influence | Tourism Industry | Tourism Economic Impact | Input-Output Analysis |

## 1. 서론

세계관광기구(WTO)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국제관광객 수는 2008년에 비해 4.2% 감소한 8억 8천만명으

로 보고되었다. 2004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던 세계 관광시장은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등의 악재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나타났다[1].

그러나,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은 경기변동의 증가나

\* “본 연구는 2011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110066)

접수번호 : #110805-001

접수일자 : 2011년 08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1월 16일

교신저자 : 지봉구, e-mail : tourxpert@khu.ac.kr

감소 상황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나 개도국, 후진국에서도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2].

이러한 관광에 대한 관심은 관광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관광의 영향 혹은 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다시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그리고 환경적 영향으로 세분류할 수 있다[3].

특히, 관광의 긍정적 경제적 영향은 다른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정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런 결과로 인하여 관광학 최초의 연구가 관광객의 지출이 관광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4].

국내에서도 관광산업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 후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6], 주된 관심은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에 관심이 높았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관광개발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광정책평가차원에서 관광산업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7][10][11].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 중에서 각 산업의 순환을 나타내기 때문에 재화의 산업간 순환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분석뿐만 아니라 미시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수출 등과 같은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5]. 그러나,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분석은 주로 특정 시점의 미시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과거의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관광산업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관광산업과 관련된 산업연관분석의 문헌분석

을 통하여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여 연구의 준거로 삼는다.

둘째,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각종 승수와 최근의 승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구조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 II. 이론연구

### 1.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 1.1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한 국가 경제에서 관광산업을 포함한 각 산업들은 생산활동을 위해 상호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 산업연관분석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인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하여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 1.2 산업연관분석의 특성

산업연관분석은 수요증가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변화를 분석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의 장점은 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각 산업을 결합하여 재화의 산업간 순환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제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어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산업연관분석은 거시분석, 미시분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분석을 통하여 경제계획의 수립 및 경제예측 또는 관광산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부분의 생산 및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이 생산, 고용, 수입,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1.3 산업산업표의 주요지표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도출 가능한 주요지표는 생산 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취 업유발계수 등이 있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수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생산유

발은 국산품과 수입품이 나뉘어 유발된다. 최종수요 증 축을 위하여 생산활동에 중간재로써 유발되는 수입을 의미한다.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 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 할 때 다른 산업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전체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표 1. 선행연구별 관광산업 종류

구분		선행연구							
관광산업	산업연관표	A	B	C	D	E	F	G	본 연구
숙박	숙박(326')	343	345	292	333	332	131	326	326
음식	일반음식점(323)	342	344	291	332	331	130	323	323
	주점(324)							324	324
	기타음식점(325)							325	325
여객 운송	철도여객운송(327)	344	346	293	334	333	132-140	327	327
	도로여객운송(329)	346	348	295	336	335		329	329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332)	349		297		337		332	332
	외항운송(333)			298		338		333	333
	항공운송(334)	352		299	340	339		334	334
운수 보조	육상운수보조서비스(335)					340		335	335
	수상운수보조서비스(336)					341		336	336
	항공운수보조서비스(337)					342		337	337
차량임대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368)					366		368	368
여행업	기타 운수관련서비스(340)		358	305	346	345		340	340
운동경기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392)	388		344		392		392	392
문화 공연	문화서비스(국공립)(386)		394	341	386-390, 396-397	388	161-162		
	문화서비스(기타)(387)			342		389			
	영화제작 및 배급(388)					390			
	영화상영(389)		395			390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391)		396	343		391			
오락유희	기타 오락서비스(392)	389	398	345	391	393		392	392
도소매	도매(321)						129		
	소매(322)		343		331	330		322	
농림 수산물	약용작물(10)	14							
섬유, 의류 및 가죽	의복 및 의복 장식품	122							
	섬유	110, 119, 120, 125							
	혁제 및 혁제품	127, 128, 129, 130							
전자 및 통신기계	라디오	274							
	TV	275							
	기타 전자기기	276							
식음료품 및 연초	식료품	64, 67, 68, 86							
	음료품	96							
기타 제조업 제품	귀금속 및 보석류	304							
	장난감	308							
	기타 제조품	306, 309, 311							
제재 및 목제품	목제/죽제품 및 나전칠기	137, 138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99							
금속1차제품	철조물	227							

A ; 최승애[6], B ; 김규호[7], C ; 류광훈[8], D ; 이충기[9], E ; 정삼철김중구[10], F ; 김한주[11], G ; 이강욱, [12]

\* 산업분류는 크게 통합대분류(28부문), 통합중분류(78부문), 통합소분류(168부문), 기본부문(403부문)으로 나뉘며, 위에서 제시된 수치는 숙박산업이 기본 부문에서 326으로 표시됨을 나타냄.

이에 비해,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특정산업이 받는 영향을 말하며,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위하여 중간재로서 투입되는 상대적 크기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산업연관표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및 순간집세를 바탕으로 부가가치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취업유발인원과 고용유발인원을 기초로 취업계수와 고용계수 등이 있다.

## 2. 선행연구

최승이[6]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투자의 산업연관분석에서 198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을 18개 부문으로 세분하고 나머지 63개 부문을 세분된 타산업부문들을 19개 통합부문 분류를 기준으로 통합한 20개 산업연관표로 재구성하였다. 분석내용은 생산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전후방연속효과, 외회획득효과, 고용증대효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김규호[7]는 지역산업연관도형에 의한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소매, 음식점업, 숙박업, 철도여객운송업, 도로여객운송업, 기타 운수관련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영화/연극/음악 및 기타예술,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업, 기타 문화서비스업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류광훈[8]은 관광산업 대상의 기존연구들이 산업정책과 관광산업의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춘 점을 지적하며,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기여도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충기[9]는 산업연관표의 통합 및 관광산업의 세분류 방법에서 관광산업을 소매업(소평), 음식점업, 숙박업, 관광교통업, 문화오락서비스업으로 통합하였다.

정삼철과 김종구[10]는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충북지역의 전략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김한주[11]는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에서 구분한 6개 지역 중 경북권의 관광산업의 비중과 경제효과를 수도권과 경남권을 비교분석하였다.

## III. 연구방법론

### 1. 자료수집

한국은행에서는 1960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이후 2008년 산업연관표까지 총 24회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특히, 2005년 산업연관표 작성 이후 산업연관표의 속보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산업연관표를 매년 작성하여 2006년, 2007년, 그리고, 2008년 산업연관표를 공표하였다[5]. 본 연구에서 사용된 2차 자료는 2009년과 2010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7년과 2008년 연장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다.

### 2. 관광산업의 분류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구목적에 적합한 산업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관광산업 포함 28개 산업으로 재분류 통합하였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객편의시설업으로 구분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소모용품 및 소모용품 임대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대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음식점업, 숙박업, 관광교통업, 여행업, 소매업(소평), 그리고, 오락/유흥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재분류하였다[표 1]. 특히, 교통업을 구성하고 있는 화물운송과 여객운송 중에서 여객운송만을 관광산업에 포함시킨 Smith[13]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관광산업을 제외한 산업부문의 영역은 ‘농림수산물’,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 및 복제’,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기타'의 28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 3. 주요 측정지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면 산업 제품에 대한 1단위 외 부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소득, 노동, 부가가치 등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데, 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등을 도출하였다.

## IV. 분석 결과

2007년과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표 3] 그리고, [표 4]와 같다.

### 1. 각종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그리고, 수입유발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생산유발계수는 기타산업이 2.63으로 제일 높았으며, 금속제품산업이 2.42, 일반기계산업이 2.38, 수송장비산업이 2.34로 그 뒤를 이었다. 관광산업은 2007년에 비해 2008년 20위에서 21위로 한단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72로 나타나 최승이[6]의 2.0609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달러의 생산유발효과가 2.0609달러에서 1.72달러로 감소함을 나타낸다.

둘째,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금융 및 보험산업이 0.9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

표 2.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1	농림수산물	1.78	19	1.86	19	0.144	22	0.197	20	0.856	7	0.803	9
2	광산물	1.73	21	1.74	20	0.152	20	0.186	21	0.848	9	0.814	8
3	음식료품	2.10	8	2.09	9	0.241	16	0.301	17	0.759	13	0.699	12
4	섬유 및 가죽제품	2.06	11	2.01	13	0.319	10	0.356	15	0.681	19	0.644	14
5	목재 및 종이제품	2.03	14	2.03	12	0.384	6	0.444	6	0.616	23	0.556	23
6	인쇄 및 복제	2.06	10	2.04	11	0.203	19	0.243	19	0.797	10	0.757	10
7	석유 및 석탄제품	1.18	28	1.14	28	0.670	1	0.768	1	0.330	28	0.232	28
8	화학제품	2.06	9	2.07	10	0.453	4	0.533	4	0.547	25	0.467	25
9	비금속광물제품	2.04	13	1.98	14	0.311	14	0.372	11	0.689	15	0.628	18
10	제1차 금속제품	2.21	6	2.26	5	0.501	2	0.567	3	0.499	27	0.433	26
11	금속제품	2.39	3	2.42	2	0.317	11	0.403	8	0.683	18	0.597	21
12	일반기계	2.39	4	2.38	3	0.313	13	0.372	12	0.687	16	0.628	17
13	전기 및 전자기기	1.86	18	1.87	18	0.457	3	0.498	5	0.543	26	0.502	24
14	정밀기기	2.14	7	2.10	7	0.339	8	0.376	10	0.661	21	0.624	19
15	수송장비	2.40	2	2.34	4	0.351	7	0.410	7	0.649	22	0.590	22
16	기타제조업제품	2.21	5	2.23	6	0.314	12	0.367	13	0.686	17	0.633	16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47	27	1.52	27	0.445	5	0.641	2	0.555	24	0.359	27
18	건설	2.06	12	2.10	8	0.208	18	0.265	18	0.792	11	0.735	11
19	도소매	1.68	23	1.64	23	0.109	25	0.132	26	0.891	4	0.868	3
20	관광산업	1.73	20	1.72	21	0.291	15	0.367	14	0.709	14	0.633	15
21	운수 및 보관	1.87	17	1.87	17	0.238	17	0.303	16	0.762	12	0.697	13
22	통신 및 방송	1.88	16	1.88	16	0.128	23	0.162	23	0.872	6	0.838	6
23	금융 및 보험	1.70	22	1.71	22	0.062	28	0.089	28	0.938	1	0.911	1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5	26	1.55	26	0.074	27	0.096	27	0.926	2	0.904	2
25	공공행정 및 국방	1.57	24	1.56	25	0.119	24	0.146	24	0.881	5	0.854	5
26	교육 및 보건	1.57	25	1.56	24	0.108	26	0.134	25	0.892	3	0.866	4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1.99	15	1.95	15	0.147	21	0.183	22	0.853	8	0.817	7
28	기타	2.66	1	2.63	1	0.337	9	0.400	9	0.663	20	0.600	20
전산업평균		1.94		1.94		1.00		1.00		1.00		1.00	

표 3.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세부 부가가치유발계수

		소득계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보조금 제외)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1	농림수산물	0.15	26	0.15	25	0.56	1	0.51	1	0.08	21	0.08	18	0.06	16	0.07	13
2	광산품	0.35	10	0.34	9	0.40	4	0.38	4	0.11	6	0.11	5	0.02	28	0.01	28
3	음식료품	0.21	24	0.19	23	0.29	6	0.26	6	0.07	25	0.07	25	0.18	2	0.18	1
4	섬유 및 가죽제품	0.33	14	0.30	13	0.18	21	0.18	19	0.07	24	0.07	26	0.10	6	0.09	6
5	목재 및 종이제품	0.28	19	0.25	20	0.18	20	0.16	22	0.10	12	0.08	15	0.06	17	0.06	17
6	인쇄 및 복제	0.39	5	0.36	6	0.21	15	0.21	11	0.10	7	0.10	7	0.09	9	0.09	8
7	석유 및 석탄제품	0.04	28	0.03	28	0.05	28	0.03	27	0.02	28	0.02	28	0.22	1	0.16	2
8	화학제품	0.22	23	0.19	24	0.17	24	0.14	25	0.09	17	0.08	17	0.07	14	0.06	15
9	비금속광물제품	0.30	18	0.27	18	0.23	9	0.23	9	0.12	5	0.10	6	0.04	20	0.04	20
10	제1차 금속제품	0.18	25	0.14	26	0.20	17	0.19	15	0.09	15	0.07	22	0.03	25	0.03	24
11	금속제품	0.33	15	0.27	16	0.22	11	0.21	10	0.10	11	0.08	16	0.04	23	0.03	23
12	일반기계	0.34	12	0.30	14	0.21	16	0.20	13	0.10	13	0.08	12	0.05	19	0.04	19
13	전기 및 전자기기	0.22	22	0.21	22	0.18	19	0.17	21	0.10	9	0.09	9	0.04	22	0.04	21
14	정밀기기	0.31	16	0.29	15	0.19	18	0.19	16	0.10	10	0.09	10	0.06	15	0.06	16
15	수송장비	0.31	17	0.27	17	0.17	23	0.17	20	0.10	8	0.09	11	0.07	13	0.06	14
16	기타제조업제품	0.36	9	0.33	11	0.17	25	0.15	23	0.08	22	0.07	23	0.08	12	0.08	11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15	27	0.14	27	0.17	22	0.00	28	0.19	3	0.17	3	0.05	18	0.05	18
18	건설	0.41	4	0.38	4	0.22	14	0.19	14	0.07	26	0.07	24	0.10	7	0.09	7
19	도소매	0.37	7	0.36	7	0.40	3	0.40	3	0.08	20	0.08	21	0.04	21	0.03	22
20	관광산업	0.28	20	0.26	19	0.22	12	0.18	18	0.09	16	0.08	14	0.11	3	0.10	4
21	운수 및 보관	0.37	8	0.36	5	0.28	7	0.24	8	0.08	23	0.08	20	0.04	24	0.02	27
22	통신 및 방송	0.34	11	0.32	12	0.25	8	0.24	7	0.20	2	0.20	2	0.08	11	0.08	10
23	금융 및 보험	0.37	6	0.35	8	0.42	2	0.43	2	0.06	27	0.06	27	0.09	10	0.07	12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33	13	0.34	10	0.37	5	0.35	5	0.12	4	0.12	4	0.11	5	0.10	5
25	공공행정 및 국방	0.56	2	0.54	2	0.07	27	0.06	26	0.23	1	0.23	1	0.02	27	0.02	26
26	교육 및 보건	0.63	1	0.62	1	0.15	26	0.14	24	0.09	18	0.08	13	0.03	26	0.02	25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42	3	0.42	3	0.23	10	0.20	12	0.09	14	0.09	8	0.11	4	0.11	3
28	기타	0.27	21	0.25	21	0.22	13	0.19	17	0.08	19	0.08	19	0.09	8	0.08	9

이 0.904, 도소매업이 0.868, 교육 및 보건산업이 0.866,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이 0.8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계수가 2007년 14위에서 15위로 한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최승이[6]의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853으로 나타나 2007년(0.709)보다는 낮고, 2008년의 결과(0.633)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과거와 비슷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입유발계수는 석유 및 석탄제품산업이 0.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 가스 및 수도산업이 0.641, 제1차 금속제품산업이 0.567, 화학제품이 0.533,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이 0.498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관광산업은 수입유발계수가 0.291에서 0.367로 높아져 15위에서 14위로 한단계 상승하였다.

1980년대 최승이[6]의 관광산업의 수입유발효과는 2007년보다는 높고, 2008년의 결과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관광산업은 과거와 같이 수입유발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부가가치유발계수

### 1) 소득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는 교육 및 보건산업이 0.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행정 및 국방(0.42), 사회 및 기타서비스(0.42), 건설(0.38), 운수 및 보관(0.3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관광산업은 2007년에 20위에서 19위로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

표 4. 관광산업의 생산유발, 영향력, 감응도계수

	감응도계수(전방연관효과)				영향력계수(후방연관효과)				
	2007		2008		2007		2008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1	농림수산물	0.8916	18	0.8882	15	0.9149	19	0.9624	19
2	광산품	0.5842	27	0.5838	27	0.8909	21	0.8997	20
3	음식료품	0.9539	14	0.9680	12	1.0833	8	1.0800	9
4	섬유 및 가죽제품	0.8083	19	0.7786	19	1.0609	11	1.0379	13
5	목재 및 종이제품	1.0489	9	1.0762	9	1.0435	14	1.0478	12
6	인쇄 및 복제	0.6676	22	0.6552	22	1.0613	10	1.0507	11
7	석유 및 석탄제품	1.3836	4	1.4779	4	0.6092	28	0.5890	28
8	화학제품	1.9154	2	1.9194	2	1.0620	9	1.0667	10
9	비금속광물제품	0.7325	21	0.7216	21	1.0526	13	1.0230	14
10	제1차 금속제품	1.9156	1	2.0912	1	1.1385	6	1.1663	5
11	금속제품	0.9618	13	0.9599	13	1.2300	3	1.2490	2
12	일반기계	0.8991	16	0.8591	18	1.2292	4	1.2299	3
13	전기 및 전자기기	1.0191	10	0.9825	11	0.9584	18	0.9629	18
14	정밀기기	0.5917	26	0.5937	26	1.1006	7	1.0860	7
15	수송장비	0.9921	12	0.9446	14	1.2335	2	1.2057	4
16	기타제조업제품	0.6362	23	0.6243	23	1.1402	5	1.1489	6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0826	8	1.1266	8	0.7592	27	0.7827	27
18	건설	0.6046	25	0.5993	25	1.0608	12	1.0828	8
19	도소매	1.2728	6	1.2251	6	0.8641	23	0.8484	23
20	관광산업	1.3283	5	1.3268	5	0.8914	20	0.8852	21
21	운수 및 보관	0.8920	17	0.8839	16	0.9643	17	0.9641	17
22	통신 및 방송	0.9052	15	0.8821	17	0.9693	16	0.9721	16
23	금융 및 보험	1.2394	7	1.2112	7	0.8735	22	0.8837	22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7605	3	1.7061	3	0.7990	26	0.7987	26
25	공공행정 및 국방	0.5274	28	0.5287	28	0.8080	24	0.8051	25
26	교육 및 보건	0.6222	24	0.6204	24	0.8079	25	0.8072	24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7654	20	0.7467	20	1.0228	15	1.0065	15
28	기타	0.9982	11	1.0189	10	1.3710	1	1.3576	1
전산업평균		1.0000		1.00		1.00		1.00	

2) 영업잉여계수

영업잉여는 농림수산물산업이 0.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 및 보험(0.43), 도소매(0.40), 광산품(0.3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광산업은 2007년 0.22로 12위에서 2008년 0.18로 하락하면서 18위로 순위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고정자본소모계수

고정자본소모계수는 공공행정 및 국방이 0.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 및 방송(0.20), 전력, 가스 및 수도(0.1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12), 광산품(0.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은 2007년(0.09)에 16위에서

2008년(0.08) 14위로 두 단계 상승하였다.

4) 생산세

보조금을 제외한 생산세 계수는 음식료품이 0.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석유 및 석탄제품(0.16), 사회 및 기타서비스(0.11), 관광산업(0.1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10), 섬유 및 가죽제품(0.09)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산업의 경우, 2007년 0.11로 3위에서 2008년 0.10으로 4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다.

3. 산업간 연관효과

1) 감응도계수

2007년과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감응도계수가 각각 1.324와 1.33으로

로 5위를 차지하였다. 먼저 감응도계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1차금속제품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화학제품이 1.9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이 1.71, 석유 및 석탄제품이 1.48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산업은 0.53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관광산업의 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타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2) 영향력계수

영향력계수는 관광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는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산업일수록 영향력계수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영향력계수 분석결과는 기타산업이 1.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금속제품산업이 1.25, 일반기계산업이 1.23, 수송장비산업이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전방연관효과는 높게 후방연관효과는 낮게 나타났다.

## V. 결론

관광산업은 선진국이나 개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을 막론하고 하나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산업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고,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계수를 산업간 비교분석하고자 2007년과 2008년의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03개 산업 세세분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이 포함된 28개 산업 부문으로 산업연관표를 제작하였다. 작성된 산업연관모형은 생산자거래표, 수입거래표 등을 작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각각 20위와 14위에서 한 단계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유발계수는 15위에서 14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가 미치는 영향은 1980년대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둘째,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구성하는 각종 계수들 중에서 소득계수와 고정자본소모계수가 상승하였지만, 영업잉여계수와 생산세계수는 2007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2007년과 2008년 모두 28개 산업부문 중에서 5위로 나타나 관광산업이 다른 산업부문의 중간재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는 20위(2007년)와 21위(2008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의 주요지표들은 과거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산업의 변화에 비해 관광산업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과거의 관광산업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바운드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지방자치제 실시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관광수요와 관광공급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승이[6]의 연구와 비교하여 관광산업의 범위 축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선행연구와 다르게 관광산업을 재분류함에 따라 비교가능성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산업 분류의 재정립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숙박산업, 외식산업, 여행산업, 교통산업이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포함된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파악하였다. 관광산업의 세부산업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제시한다.

셋째,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가 세세분류까지 산업분류를 실시하였



으나,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취업자 관련 2차 자료가 세세분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증분류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2010.
- [2] 김창근, 신동주, 지봉구, 홍창식, *관광학원론*, 서울, 대왕사, 2007.
- [3] 이계희, 지봉구, "관광산업 관련정도와 관광개발 인식수준, 관광영향 지각, 그리고 관광정책참여의도의 영향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2, pp.416-424, 2011.
- [4] 박호표, *관광학의 이해*, 서울, 학현사, 1999.
- [5]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서울, 한국은행, 2010.
- [6] 최승이, "우리나라 관광산업 투자의 산업연관분석",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7] 김규호, "*관광산업의 지역경제적 효과분석; 경주 지역에 대한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적용*", 경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8] 이강욱, 류광훈,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관광연구원*, 1999.
- [9] 이충기, *관광응용경제학*, 서울 일신사, 1997.
- [10] 정삼철, 김종구,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4.
- [11] 김한주,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경북권과 타권역간 관광산업의 경제효과에 대한 비교분석", *관광연구*, Vol.24, No.2, 2009.
- [12] 이강욱, *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13] Stephen L. J. Smith, "Defining Tourism: A Supply-Side View,"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15, No.2, pp.179-190, 1988.

**저자 소개**

**지 봉 구(Bong-Gu Jee)**

**정신회원**



- 1994년 2월 :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사)
- 1997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2년 8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연구교수  
<관심분야> : 관광정보, 관광전략, 문화관광콘텐츠

**이 계 희(Gye-Hee Lee)**

**정회원**



- 1992년 5월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호텔경영학석사)
- 2001년 12월 : Perdue University (관광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관심분야> : 관광지마케팅, 소비자 행동론

**김 태 구(Tae-Goo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6년 2월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조교수(연구)  
<관심분야> : 관광현대산업부문 전략경영, 조직행동